

텍사스 기쁨의 교회

2022 성경일독 & Family Devotions (5 월 May)

	성경일독	Family Devotions Meet the Bible (Philip Yancey)
1st	역대하 24 장-느헤미야 1 장	느헤미야 Nehemiah 7:73-8:18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 Ezra reads the law
2nd	느헤미야 2 장-욥기 1 장	에스더 Esther 3:1-4:17 하만의 계략과 모르드개의 계획 Haman's Plot and Moredecai's Plan
3rd	욥기 2 장-24 장	욥기 Job 38:1-7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The Lord speaks
4th	욥기 25 장-시편 5 편	욥기 Job 42:1-17 욥의 회복 Job is restored
5th	시편 6 편-시편 28 편	시편 Psalm 27:1-14 감정의 기복 Ups and downs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양육법

성경은 자녀교육 전문서는 아니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불변하는 기본적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모델(model)의 중요성입니다. 잠언 20 장 7 절은 성실한 부모로 인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의 성실성이 자녀의 모델이 되어 자녀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 이전에 부모가 성실히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리서치 결과는 "고공의 매가 먹이를 찾기 위해 지상을 관찰하듯이 자녀들은 의식, 무의식 속에서 부모의 모든 면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델의 한 예는 부모가 TV 나 컴퓨터를 많이 하기보다는 양서를 읽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른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잠언 1 장 4 절은 지혜의 가르침이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기 위함이라"라고 합니다. '젊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유아'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혜서는 유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리서치 결과는 5 세 (Preschool)이전의 자녀 양육은 프리스쿨 이후의 전 일생에 걸쳐서 한 사람의 정서적 신체적 지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수록 한인 부모들은 가정의 수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녀양육에 더 신경을 써야 자녀의 미래는 더욱 밝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감동적인 광고가 대충 기억납니다.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호숫가에서 오리를 보면서 할머니를 따라 "오리"라고 소리 내어 발음합니다. 내레이터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입니다."

셋째는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1)고 권면합니다. 낙심은 모든 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자녀를 낙심시키고 공부하라고 하면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자녀들이 격노하여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잔소리'와 '무시됨 (존중되지 않음)'과 '지나친 징계'로 설명합니다. 존 스토틀 목사는 자녀가 격노하게 되는 예를 소설 '자이언트'에서 아버지가 세 살 배기 아들을 자기처럼 목장주인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들었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독특하고 독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리서치의 한 예는 아이들이 감정이 상한 채로 학교를 가게 되면 상한 감정을 삭이느라고 에너지를 공부에 쓸 수가 없게 되고 혹은 분노에 대한 반항으로 일부러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이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은 자녀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자녀 스스로 왕성하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은 돈이나 부모의 권위로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적 사랑과 관심과 인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질적인 시간(qualitative time)뿐만 아니라 양적인 시간(quantitative time)을 자녀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은혜가 임하는 가정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For His Kingdom and His Family,
김성호 목사 드림

1st Week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 Ezra reads the law

찬송하기 (Praise)

기도하기 (Pray):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Bible Reading): 느헤미야 Nehemiah 7:73-8:18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느헤미야는 분명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짝을 이루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불굴의 지도력이 탄생합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정치적 인맥이 든든한 느헤미야는 실무에 적극 참여하는 관리의 모습과 두려움 없는 낙관적 태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자신감을 줍니다. 에스라는 개인적 품성보다는 도덕적 영향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에스라가 타고난 제사장의 혈통은 고대 인물 모세의 형 아론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ehemiah alone is an impressive leader, but when paired with Ezra (EZ-ruh), he is downright indomitable. The two make a perfect combination. Nehemiah, emboldened by good political connections, inspires others with his hands-on management style and his fearless optimism. Ezra leads more by moral force than by personality. He can trace his priestly lineage all the way back to Moses' brother Aaron, and he seems singularly determined to restore integrity to that office.

몇 년 전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관심을 보고 경악합니다. 연단에 올라가 그들의 실패를 꾸짖는 대신, 그는 자기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땅에 엎드려 회개의 금식을 시작합니다(스 9 장). 그가 간절히 통회하는 모습에 유대 귀환자들이 놀라 모두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심합니다.

On his arrival in Jerusalem some years before, Ezra was shocked by the Jews' spiritual apathy. Rather than mounting a soapbox and scolding them for their failures, he tore his hair and beard, threw himself on the ground, and began a fast of repentance (see Ezra 9). His remarkable display of contrition so startled the Jewish settlers that they all agreed to repent and change their ways. Ezra had that kind of moral influence over people.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 지난한 성벽 재건공사를 마친 후 일어나는 일입니다. 드디어 적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게 된 유대인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할 희망을 품고 한자리에 모두 모입니다.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거대한 군중을 향해 연설합니다. 새로 지은 강단에 오른 에스라는 거의 1000 년이나 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본래의 언약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The action in this chapter takes place after Nehemiah has completed the arduous task of repairing the wall. The Jews, safe at last from their enemies, gather together in hopes of regaining some sense of national identity. As spiritual leader, Ezra addresses the huge crowd. He stands on a newly built platform and begins to read from a document nearly one thousand years old, the scroll that contains the Israelites' original covenant with God.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던 소리가 군중 전체로 퍼져 통곡의 물결을 이룹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언약을 너무 오랫동안 저버렸던 죄를 회개하는 울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국이었던 아름다운 옛시절이 그리워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대한 축하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지 눈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As Ezra reads the ancient words, a sound of weeping begins to rise, spreading through the multitude. The Bible does not explain the reason for the tears. Are the people feeling guilt over their long history of breaking that covenant? Or nostalgia over the favored days when Israel had full independence? Whatever the reason, this is no time for tears. Nehemiah and Ezra send out orders to prepare for a huge feast and celebration. God wants joy, not mourning. His chosen people are being rebuilt, just as surely as the stone walls of Jerusalem have been rebuilt.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미지, 즉 연단에 서서 두루마리를 읽는 외로운 모습은 유대 민족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영토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재건한 성전도 예전처럼 결국 약탈자들의 손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The central image of this chapter—a lone figure atop a wooden platform reading from a scroll—comes to symbolize the Jewish race. They are becoming “people of the Book.” The Jews have not regained the territory and splendor their nation once enjoyed under David and Solomon. The temple they have painstakingly constructed will eventually fall to looters, just like the one it replaced. But they will never forget the lesson of Ezra. He becomes the prototype for a new leader of the Jews: the scribe, a student of Scripture.

현대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규정하는 것은 성스런 건물도, 특정한 도시도, 성직자도,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살아 숨 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Today it's not a sacred building or a particular city or a priest or scribe that defines God's presence in our lives. Jesus changed the physical nature of that presence. Now

we find God's Spirit dwelling inside us. Each believer has become a living, breathing temple of God. We need to work at staying in touch with God, however. We must be intentional about building God a prominent place in our lives.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초석입니다.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을 지어드려야 합니다.

God's Word serves as our foundation. Never will we outgrow our need for studying the Bible. Never can we know it well enough. Stone by stone, reading and learning, we build God an enduring home in our hearts.

[은혜 나누기]

성경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How important is the Bible in your life? What have you done to intentionally build God into your life? Do you yearn to spend time with God through the study of his Word, or is this more of a chore? Thank God for the things he is teaching you about himself and his love for you, and ask him to keep surprising you with new joy in time spent with him.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End a family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2nd Week

하만의 계략과 모르드개의 계획

Haman's Plot and Moredecai's Plan

찬송하기 (Praise)

기도하기 (Pray):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Bible Reading): 에스더 Esther 3:1-4:17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옵니다. 마침내 막강한 권력자 하나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음모와 계략은 유대인들에게 오래되고 익숙한 일입니다. 로마제국의 침공, 중세의 유대인 사냥, 러시아의 집단학살,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등 어느 민족도 이만큼 위협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The Jews in Persia face a grave crisis. Their success has attracted so much jealousy that a powerful man is leading a conspiracy to kill every Jew in the land. Tragically, the underlying "plot" of Esther is an old and familiar one to Jews, for throughout history—Roman campaigns, medieval Jew-hunts, Russian pogroms, Hitler's "final solution"—no other group has faced such a constant threat of extermination.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이뤄내는 우연 같은 일들이 강조됩니다. 다행히도 에스더는 용모가 출중했고, 때마침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때 무명이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 중에 오직 그녀만이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촌

모르드개의 말대로, 그녀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Although the book of Esther never once mentions the word God, the story highlights the many “coincidences” that work together on the Jews’ behalf. By the “accident” of her beauty and the “accident” of the former queen’s dismissal, Esther has risen from obscurity to become queen of the Persian Empire. She alone, of all the Jews, has access to the king. As her cousin Mordecai puts it,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는, 왕후라도 자기 남편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한 명의 왕후를 즉석에서 폐위 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감으로써, 자기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Yet in Esther’s day a queen does not easily stand up to her husband—especially a husband like Xerxes (ZERK-seez), who has already summarily dismissed one queen for insubordination. By intervening for the sake of her race, Esther might be putting her own life in jeopardy.

에스더 이야기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전율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민족도 그렇게 학살당한 적이 없지만, 어떤 민족도 유대인처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그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을까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 우연처럼 등장하는 각자의 용기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Esther’s story is a thrilling chapter in the story of God’s love for the Jews. While no other group has been so persecuted, no other group has shown the Jews’ ability to overcome adversity. How? Esther reveals God’s exquisite timing—combined with the courage of individuals who “happen” to b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모든 상황은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계획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유대 민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말 3:6).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시대와는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분의 목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택하신 백성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마침 거기에 내가 있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They were brought about by a sovereign God who had a plan for Esther’s life and for the lives of his people. We serve the same God as did the Jews of Esther’s day. God tells us, “I the LORD do not change” (Malachi 3:6). His ways of moving in our lives may look somewhat different from his ways of moving in the Old Testament, but God has not changed, nor have his purposes. Just as he had a plan for his people then, he has a plan for those who belong to him now. We can trust that whenever we find ourselves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God’s hand is present.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모든 행운과 모든 선물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간단한 복일 때도 있고, 더 큰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일 때도 있습니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James 1:17). We can thank God for each stroke of good fortune, each providential gift. Sometimes they are simple blessings. Other times they are his strategic ways of fulfilling the bigger purposes he has for us.

[은혜 나누기]

하나님이 당신을 왜 그곳으로 이끄셨는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까? 실패하거나 기회를 잃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 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분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을 통해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Do you wonder about the places to which God has brought you in life? Do you have questions about failures or missed opportunities? Ask God to help you better see your life through his eyes, and place yourself in his care, trusting that his good purpose for you will be achieved.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End a family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3rd Week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The Lord speaks

찬송하기 (Praise)

기도하기 (Pray):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Reading Bible): 욥기 Job 38:1-7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책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서른다섯 장을 건너뛰어 결론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이유는 욥기 중간 부분이 앞의 장들처럼 인간적 고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다 그렇듯 욥도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흐느껴 울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애원하는가 하면 자기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고난이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가 벌컥 화를 내며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깊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도 어느샌가 희망에 차올라 다시 힘을 냅니다.

It seems a travesty to skip thirty-five chapters and rush to the conclusion, for those middle chapters of Job express the human dilemma as well as it has ever been expressed. Like all grieving persons, Job drifts on emotional currents, alternately whining, exploding, cajoling, and collapsing into self-pity. Sometimes he agrees with his friends, who blame Job himself for his suffering, and sometimes he violently disagrees. Occasionally, in the midst of deepest despair, he comes up with a statement of brilliant hope.

욥기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모든 논쟁이 다 기록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의 관계에 찾아온 고비가 욥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비참한 운명을 설명해줄 수 있는 한 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 겁니다.

Nearly every argument on the problem of pain appears somewhere in the book of Job, but the arguing never seems to help Job much. His is a crisis of relationship more than a crisis of intellectual doubt. Can he trust God? Job wants one thing above all else: an appearance by the one Person who can explain his miserable fate. He wants to meet God himself, face to face.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결국 욥은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왜 욥에게 하나님의 출현을 기대할 권리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Eventually, as this chapter relates, Job gets his wish. God shows up in person. He times his entrance with perfect irony, just as Job's friend Elihu (el-LI-hoo) is expounding on why Job has no right to expect a visit from God.

욥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은 질문거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정작 질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욥 38:3). 서른다섯 장에 걸쳐 고통의 문제를 논한 언쟁을 무색하게 하시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장엄한 시로 몰아가십니다. 산염소, 들나귀, 타조, 독수리 등 좋아하시는 피조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창조의 전시 실로 욥을 안내하십니다(욥 39 장).

No one—not Job, nor any of his friends—is prepared for what God has to say. Job has saved up a long list of questions, but it is God, not Job, who asks the questions. “Brace yourself like a man,” he begins;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Brushing aside thirtyfive chapters’ worth of debates on the problem of pain, God plunges instead into a majestic poem on the wonders of the natural world. He guides

Job through the gallery of creation, pointing out with pride such favorites as mountain goats, wild donkeys, ostriches, and eagles (ch. 39).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욥처럼 미약한 인간 사이의 극명한 차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욥 40:9). 하나님은 태양계, 별자리, 폭풍, 야생동물 등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펼쳐놓으십니다.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 드느냐?”

Above all, God’s speech defines the vast difference between a God of all creation and one puny man like Job. “Do you have an arm like God’s?” he asks at one point (40:9). God reels off natural phenomena—the solar system, constellations, thunderstorms, wild animals—that Job cannot begin to explain. God’s point is obvious: If you can’t comprehend the visible world you live in, how dare you expect to comprehend a world you cannot even see?

[은혜 나누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매달립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해보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믿음,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In times of suffering, do you cling to your love for God or accuse him of tormenting you? Talk with God about your attitude toward suffering. Let him know you want your love for him to be bigger than anger or dismay over your circumstances. Ask him to help you hold to your love even in the most difficult times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End a family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4th Week

욥의 회복 Job is resotred

찬송하기 (Praise)

기도하기 (Pray):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Bible Reading): 욥기 Job 42:1-17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단순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가장 큰 의문에 임재하심으로 장엄하게 답하십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라고 물었던 욥이 자복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3). 마침내 큰 그림을 본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What God says is not nearly so important as the mere fact that he shows up. His presence spectacularly answers Job’s biggest question: Is anybody out there? “Surely I spoke of things I did not understand,” Job confesses, “things too wonderful for me to know.” Catching sight of the big picture at last, Job repents in dust and ashes.

하나님은 욥의 생각을 바로잡아줄 말씀도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욥도, 특히 그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칭찬하십니다. 에스겔 14 장 14 절은 가장 의로운 사람의 본보기로 욥을 언급합니다.

God has some words of correction for Job. No one, not Job and especially not his friends, has the evidence needed to make judgments about how he runs the world.

But mainly God praises Job, calling him "my servant." (Ezekiel 14:14 mentions Job in God's list of the finest human examples of righteousness.)

사탄은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하나님과 내기를 했습니다 (욥 1:11). 사탄이 졌습니다. 그 기막힌 사태를 파악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욱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과 모순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잃은 모든 것이 복구되기 전에, 온통 종기가 퍼진 별거벗은 몸으로 잣더미에 앉아서 깊이 뉘우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의 기미가 없는 암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Satan wagered with God that Job would "surely curse you to your face" (1:11). He lost. Despite all that happens, Job does not curse God. He clings to his belief in a just God even though everything in his experience seems to contradict it. Significantly, Job speaks his contrite words before any of his losses have been restored, while still sitting in a pile of ashes, naked, covered with sores. He has learned to believe even in the dark, with no hope of reward.

욥기의 결말은 놀라운 반전으로 끝납니다. 지극히 신앙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을 쏟아 놓았던 욥의 친구들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울부짖던 욥은 예전에 잃었던 소유의 두 배를 받습니다. 양 1만 4,000 마리, 낙타 6,000 마리, 나귀 1,000 마리, 그리고 10 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The book of Job ends with some surprising twists. Job's friends, who spouted all the right pieties and cliches, have to plead for forgiveness. Job, who raged and cried out, receives twice as much as he ever had before: fourteen thousand sheep, six thousand camels, one thousand donkeys, and ten new children.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고난 중에 욥기를 읽으며 많은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실제로 영적 승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해피엔딩은 평화와 회복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상기시켜줍니다.

The book of Job will give much comfort to Jews during the harsh period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It demonstrates the important lesson that not all suffering comes as punishment; a person's trials may in fact be used to win a great spiritual victory. And the happy ending of Job also echoes the promises of the prophets, awakening hopes for a future time of peace and restoration.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돌아 볼 때 욥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봅니다. 욥은 메시아의 예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비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완벽한 인간 예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Christians, looking back, see yet another message in Job, who stands as an early prototype of the Messiah. Job, the best man of his day, suffered terribly; Jesus, a perfect man, would suffer even more.

[은혜 나누기]

욥과 같은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Have you experienced any Job-like trials in your life? What were the results?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End a family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5th Week

감정의 기복 Ups and downs

찬송하기 (Praise)

기도하기 (Pray):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Bible Reading): 시편 Psalm 27:1-14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결코 성인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안이나 고요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을 하다가 또 구원을 간청하기도 합니다.

The Psalms open a window into the inner life of King David. That window discloses some surprises, however. David is surely no saint, and seldom does he show the peace and serenity normally associated with "spiritual" people. In fact, he often cries out against God, blaming him when things go wrong and begging for relief.

시편은 경건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략과 험담과 폭력을 일삼는 적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편 기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때로 하나님보다 더 실제 적으로 보이는 강력한 힘에 맞서 싸우는 끊임없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버림받고 이용 당하고, 배신당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The Psalms are not pious devotionals. They are filled with accounts of enemies who scheme and gossip and plot violence. For the psalmists, faith in God involves a constant struggle against powerful forces that often seem more real than God. The

writers frequently ask, "Where are you, God? Why don't you help me?" They often feel abandoned, misused, betrayed.

예를 들어 27 편을 살펴보면 각 연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첫째 연(1-3 절)은 두려움이 전 혀 없는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연(4-6 절)은 저자의 실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데, 도망에 지친 저자가 하나님의 집에 안주하여 원수들 위로 올라설 날을 소망합니다. 셋째 연에 이르면,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톤이 부드러워지면서 다윗이 실제 경험했던 실질적 충 고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As an example, consider Psalm 27, which shifts in mood with every stanza. The first stanza opens with a bold declaration of confidence in God from an author who seems downright fearless. The second stanza hints at the author's true condition: tired of running, he yearns for the day when he can rest safely in God's dwelling and rise above all his enemies. By the third stanza, all confidence has melted and the psalmist is pleading for help. The psalm ends in a calmer tone, with a word of practical advice David often had opportunity to put into practice: "Wait for the LORD."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다윗이 숨은 곳은 광야의 바위와 요새였습니다. 경험 많은 군사로서 다윗은 그 런 지형이 얼마나 유리한지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바위와 요새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분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Yet out of such trials a strong, toughened faith in God emerges. In the years when David is an outlaw from King Saul, his hideouts include a "rock" in the desert and a "stronghold." As an experienced fighter, David knows the value of such defenses. But when he writes about these days—as in this psalm—he calls God his rock and his fortress. He recognizes readily that God is the true source of his protection.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외적의 끊임없는 침략과 내부 폭동, 반란 기도를 수없이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을 배웠습니다.

Danger will not fade away even after David becomes king. He will face unceasing hostility from enemies, as well as numerous internal rebellions and coup attempts. But David has learned a pattern of helpless dependence in the wilderness that he will practice throughout his life.

[은혜 나누기]

당신의 감정 상태는 비교적 평온한 편입니까, 아니면 기복이 심합니까?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불신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을 털어버리라고 하시며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Is your emotional life fairly even or full of peaks and valleys? What about your spiritual life? Where is the bulk of your distrust focused today? Do you sense God asking you to let go of your distrust and let him protect you instead? Take a moment to ask God for his wisdom and protection.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End a family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